

제415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6월21일(금)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업무보고
 - 국회사무처
 - 국회도서관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인권위원회
 - 대통령비서실
 - 국가안보실
 - 대통령경호처
-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 업무보고 2
 - 국회사무처
 - 국회도서관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인권위원회
 - 대통령비서실
 - 국가안보실
 - 대통령경호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74
-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 74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 등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한 말씀 드리면, 오늘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으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조속히 함께하셔서 국민들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업무보고

- 가. 국회사무처
- 나. 국회도서관
- 다. 국회예산정책처
- 라. 국회입법조사처
- 마. 국회미래연구원
- 바. 국가인권위원회
- 사. 대통령비서실
- 아. 국가안보실
- 자. 대통령경호처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오전에는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를 먼저 진행하고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업무보고는 15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관장들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해 주시고 업무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재현 국회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찬대 예, 박성준 간사님.

○박성준 위원 오늘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다들 소관 부처에서 나오셨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이 업무보고를 무시하고 오늘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출석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이 보고를 받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국무위원으로서 마땅한 도리인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송두환 위원장님 나오셨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나와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불출석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사실은 서면으로는 따로 밝히지 않았고요. 지금 본인이 그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지요. 행정실에서 이충상 위원에게 어디 있는지 소재를 파악하고요 또 1시간 안에 출석하라고 바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민 앞에 정정당당 해야 되잖아요. 국민 앞에 자신이 일을 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정정당당함을 통해서 인권위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그 사유서도 내지 않고 사유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저희가 경고를 해야 된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1시간 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1시간 거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대** 운영위원회 행정실장께서는 이충상 인권위원께서 1시간 이내에 국회에 출석하도록 행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박찬대** 서미화 위원님.

○**서미화 위원** 저는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저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으로서 소리를 매개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 비장애인 의원님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국가공무원시험 등에서도 장애인에게 시험시간을 1.2배에서 1.7배까지 더 주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의 제공은 특별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장애 당사자의 평등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마땅히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국민의 대표로서 준비한 의제를 다른 비장애인 위원님들과 동등하게 다룰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공식적인 질의나 발언 시 위원장님께 최소 저에게 1.5배 정도의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찬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주질의에 들어갈 때 간사님과 협의된 시간보다 좀 더 부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다시, 백재현 국회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백재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국회사무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사무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을 보좌하여 입법과 예결산 심의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민생위기,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위기, 기후위기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다양한 대내외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국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국회사무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생현안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실 있는 국회 운영을 지원하고 급증하는 각종 의안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증가하는 입안 의뢰에도 신속·정확한 입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책현안에 대한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입법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입법 분석·평가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4강 외교 외에도 신홍국 및 발전 잠재력이 있는 국가들로 의회외교 지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회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청원심사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또한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방송 및 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국회 행사 개최를 통해 대국민 소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교육·연수 및 의원연구단체 지원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보좌진, 직원, 시민 및 지방의회 등 수요자 맞춤형 의정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등 효율적인 입법정보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경내 경호 강화,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의정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난해 마련해 주신 규칙안을 토대로 세종의사당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입법차장입니다.

박장호 사무차장입니다.

김상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희석 법제실장입니다.

송수환 세종의사당추진단장입니다.

정명호 의사국장입니다.

황승기 국제국장입니다.

임종수 관리국장입니다.

김명진 방송국장입니다.

이현정 의정연수원장입니다.

정지은 문화소통기획관입니다.

성소미 공보기획관입니다.

손을춘 감사관입니다.

황충연 경호기획관입니다.

다음으로 김광선 민원지원센터장입니다.

남궁인철 인사과장입니다.

이홍석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서관장 이명우 안녕하십니까? 국회도서관장 이명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도서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도서관은 의정 및 입법 지원기관으로서 의원님들께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사실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전 직원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는 디지털 정보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진일보한 의정 및 입법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의 의정 및 입법 지원 서비스 중에 의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것은 단연 의회·법률정보회답입니다. 의회정보실과 법률정보실 소속 100여 명의 전문사서와 석·박사급 해외자료조사관, 법률자료조사관들이 국내외 정책과 법률정보 등을 조사하여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조사회답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별로 주요 현안에 초점을 맞추어 최신 데이터 기반의 자료를 발간하는 한편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바탕이 되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등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입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성형 AI 기술이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드는 대전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이에 발맞추어서 디지털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8년부터 AI 의정분석 서비스 '아르고스'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주요 이슈와 관련 뉴스 등 최근 데이터를 의제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에 꼭 필요하신 국내외 각종 연구 자료, 법률 관련 통계 데이터, 주요국의 전략보고서 등을 확보하여 데이터로 충실히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국회가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핵심 어젠다 논의에서 중심이 되도록 국가전략 정보포털 등 국회도서관의 정보시스템을 더 고도화하겠습니다.

그동안 국회도서관은 4억 면 이상의 디지털 원문을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국내외 7200개 학술정보기관과 협정을 맺고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국가도서관 역할도 꾸준히 해내겠습니다.

향후 국회도서관은 의정 및 입법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폭넓은 지식정보 서비스를 위하여 온라인 자료를 납본·수집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현황은 제출한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도서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은희 의회정보실장입니다.

최용훈 법률정보실장입니다.

이진경 기획관리관입니다.

유미숙 정보관리국장입니다.

조영란 정보봉사국장입니다.

신경숙 국회기록보존소장입니다.

조정권 국회부산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국회운영위원회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저희 처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와 국민에 봉사하는 재정전문기관으로서 올해 설립 2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예결산 분석과 재정소요 법안의 비용추계, 재정 및 경제 전망 그리고 경제 현안 분석 등을 통해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처가 재정·경제 분야 의정활동 지원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예산정책처의 모든 구성원은 제22대 국회에서도 나라 살림 지킴이, 나라 정책 길잡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으로써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반등으로 수출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금리 기조 및 고물가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내수 회복세가 지연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불안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와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함께 효과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2대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처는 이러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 사항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찰력 있는 재정 분석과 객관적인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겠습니다.

재정 전반에 관한 총괄 분석과 재정총량 분석을 강화하는 등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를 6~7월 중에 조기 발간함으로써 결산 심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가의 주요 사업과 공공기관 현안에 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평가보고

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서 국회의 예결산 심의 및 국정감사를 지원하고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의안비용추계를 내실화하고 재정전망 및 세제분석을 심도 있게 수행함으로써 국회의 법안 및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법률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합리적인 법안 심의를 지원하고 전망모형을 고도화하여 재정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한편 국회의 예결산 심의 기반을 내실화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조세정책 분석과 독자적인 세입전망 제시를 통해서 국회의 조세법안 및 예결산 심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경제전망을 적시에 제공하고 주요 경제 현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면밀한 대내외 경제여건 분석을 토대로 연 2회의 경제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와 적시성 있는 정책의제 발굴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경제 현안 및 경제 변수에 관한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재정·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분석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현안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경제 분야 정책자료집 및 기획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회의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 결정에 기여하는 한편 의정활동 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경제학회 등 4개 주요 학회와 개원 기념 재정경제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재정전문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도 공고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예산정책처는 직무수행의 세 가지 원칙인 전문성, 중립성, 객관성을 견고하게 지켜 나가면서 제22대 국회에서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호 예산분석실장입니다.

신항진 추계세제분석실장입니다.

이양성 기획관리관입니다.

진익 경제분석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입법조사처장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박상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제22대 국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국회입법조사처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새롭게 발전하고자 하는 일신우일신의 마음가짐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7년 설립돼서 올해 17주년을 맞이하였고 연평균 5000건 이상의 입법조사회답, 약 250건 이상의 연구보고서와 정책세미나 개최 및 대면보고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정성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중점 추진 업무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법·정책 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분석입니다.

조사처는 의원·위원회에 대한 회답을 기본 업무로 하는 것 외에 적시성 있는 입법·정책 현안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선거·의회제도 연구 및 국제정세 분석, 에너지·소상공인 정책과 국제 통상질서 분석, 저출생·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 연구 등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연구 분야입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에 발간된 주요 연구 분야 보고서 주제는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집에 열거해 두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국정감사의 지원을 위해서 매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10권을 상임위원회별로 편제하여 발간해 왔습니다. 전년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점검과 분야별 정책 이슈를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올해도 8월경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5월 30일에는 개원을 기념해서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입법·정책 현안들을 정리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특별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과학적·전문적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제도화를 위해서 시범보고서를 작성하고 입법영향분석사업단을 설치하는 등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6개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어렵게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입법영향분석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증거 기반의 과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업무에 적용하는 연구·훈련이 요청되기에 상시적으로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를 TF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등 분석모델 개발을 위해 간담회를 연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실증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입법·정책 플랫폼으로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고품질의 전문성 있는 조사분석 및 연구를 위해서는 국내외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24개 법학회와 2024년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주요 연구기관, 학회와 남북관계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일반 국민의 정책 소통 플랫폼인 입법·정책 제안 대회와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법이 부여한 국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입법지원조직 역량 강화 및 활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입법조사처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조사처가 더욱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입니다.

강종석 경제산업조사실장입니다.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입니다.

심정희 기획관리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미래연구원장 김현곤 안녕하십니까? 국회미래연구원장 김현곤입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미래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 출연연구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입법부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3개의 중점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핵심 어젠다 중심의 국가 중장기 전략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사업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와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12대 어젠다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예측 및 분석 사업에서는 제22대 국회 개원기념 보고서를 발간하여 새 국회에서 논의되고 정책과 입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분야별 미래 어젠다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전략 사업에서는 신흥기술과 미래안보,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한반도 미래전략 등을 주제로 연구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회에서의 활용도 높은 미래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연구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는 미래사회 대응 지표체계 및 모니터링 연구, 국민과의 미래대화 연구, 한국인의 행복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미래의제 지원 사업에서는 국회의 미래의제 수시 연구와 국회의 미래의제 입법활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회 내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 성과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와 의원실을 대상으로 미래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각 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주요 미래이슈에 대한 심층연구 결과물을 정책고객들께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2종의 브리프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기관의 업무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래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수 연구지원실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박찬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 그리고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요구가 한데 어우러져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염원을 담아서 2001년 11월 독립적 국가기구로 출범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에 걸쳐서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권고를 했으며 인권의식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인권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인권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우리 앞에는 기존의 인권 과제에 더해서 기후위기와 인권의 문제, 혐오와 차별, 지역인권보장체계의 약화 조짐,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인권적인 우려, 디지털 격차의 문제 등 새롭고 논쟁적인 인권 과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점 과제는 인권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기후위기는 생명, 신체, 건강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그 피해가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변화시키고 민감정보 수집, 거짓정보 양산,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형태로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새로운 인권 현안에 대해서 인권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 과제는 기본적 인권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원칙이 구현되는 사회를 위한 평등법 제정, 지역인권보장체계

의 구축,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등 인권 토대의 확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 과제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의 강화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 전담 국가기구이자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군인권보호 관제도의 정착 그리고 군인권 보호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등 우리 사회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권위 구성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위원회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삼아서 더욱 신뢰받는 국가인권기구로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규선 상임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용원 상임위원입니다.

다음은 박진 사무총장입니다.

조영호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석준 정책교육국장입니다.

서수정 침해조사국장입니다.

박홍근 군인권보호국장입니다.

염형국 차별시정국장입니다.

안성율 교육협력심의관입니다.

(인사)

이상 상임위원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 간부님들 소개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국회 소관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5분으로 하되 아까 말씀 주셨던 서미화 위원님께는 7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분 괜찮을까요?

○서미화 위원 7.5분 주세요.

○위원장 박찬대 7.5분인데 이게 1분 단위로 돼서요.

○서미화 위원 8분 주셔야지요. 반올림해서 8분 주시지요.

○윤건영 위원 8분 주시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대 반올림해서 그러면 8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윤종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윤종군 위원님.

○**윤종군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 국회의원 윤종군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같이하고 있지 않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 큰 유감을 표합니다.

모든 운영위원님들께서 오늘 오전 출석한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받고 서명을 하셨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갖은 명분을 이야기하지만 국회 보이콧이 일종의 위력 시위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동안 국민의힘 위원들도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사무처, 미래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등 모든 자료를 수령하고 사인한 내역이 다 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실이, 국민의힘 의원실도 다 자료를 받은 것에 사인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국회 파행이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출석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모든 업무보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받지나 말든지, 서명까지 다 해놓고 왜 안 들어오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방청인 목록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자료요청을 좀 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라서 안 주실까 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첨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송두환 위원장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 위원장 검토 후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실 자료요구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첨부한 것은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그것 보고…… 요구를 받은 것은 맞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령 그리고 선례 이런 것을 참조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윤종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을 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군 위원** 예.

○**강유정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아니, 끝났나요?

○**윤종군 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예.

○**윤종군 위원** 우리 박진 사무총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하시면 성실히 자료제출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총장님도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회사무총장 백재현** 예, 성실하게 답변도 하고 성실하게 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언론 기사에도 많이 인권위에서 있은 안 좋은, 공식 회의석상에서 반인권적인 발언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언론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운영위원이 내용 확인하겠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라서 못 준

다는 답변을 아직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못 지니까 개인정보라고 그냥 답변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직무상 성명과 연락처가 공개된 언론인과 시민단체 활동가 명단은 무조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강유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충상 상임위원 소재 파악됐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대 행정실, 아까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혹시 소재 파악이 됐습니까?

이충상 상임위원이 지금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소재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휴대폰을 꺼 놓는 등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렇다면 또 한 번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구두로 불참한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간사에게 조차 양해조차 구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소재를 파악해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 적법한 부름임에도 불구하고 변명할 최소한의 의무조차 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원들이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강제 출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듯하고요. 지금 중인으로 출석해야 될 듯합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대 저희가 아까 한 시간 안에 출석을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출석이 예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유정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다 마치셨나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유정입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짧은 이유로 혹시 중간에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강유정 위원 인권위는 국민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국회 봉으로 선출한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상임위원의 언동이 반인권을 넘어서 인권 파괴 수준입니다. 인권위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이런 부조리극이 없는데요. 그간 두 위원들이 다름 아닌 인권위에서 보여 준 반인권적 막말들입니다.

PPT 화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들에게 이런 반인권적 언사를 보여 드리니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혐오 발언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입니다. 제가 입으로 옮기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개이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 ‘괴해자들이 물주의해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다’, ‘일본 성노예 타령 자꾸 할 거냐’, ‘인권 장사치’, 김용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패륜 언동이 여기에 멈추지 않는데요. 심지어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께 ‘말벼룩이 없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사실입니다.

○**강유정 위원** 동료 위원에게도 막말을 서슴지 않는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요점만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사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내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국민들께 염려를 하시도록 이렇게 만들고 오늘 운영위원회 석상에서도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제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강유정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 발언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알겠습니다.

제가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회의 석상에서 제가 나름대로는 노력은 했습니다만 제 역부족인지 그것을 실효적으로 제지를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권위원은 신분보장과 면책규정이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인권 수호를 위해서 권력기관에 쓴소리하라고 준 권한입니다. 그런데 김용원, 이충상 이 두 상임위원은 위원장께도, 동료 위원께도 그리고 시민사회에도, 사회적 약자에도 혐오와 차별의 막말을 하는 데 이 권한 악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용원 상임위원께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작년 8월 9일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으로서 국방부 외압 의혹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나 8월 14일 이후에 태도가 백팔십도 전복됐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나눈 뒤라고 합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8월 28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박정훈 대령이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을 처리 및 관철하겠다고 해 놓고 정작 다음 날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사실관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강유정 위원** 맞습니다.

원민경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이 재소집하고 기각 결정 재검토하자고 했지만 불허됐습니다. 그리고 군의 조작과 하명 수사 등 박정훈 대령이 처한 인권 위협 상황을 오히려 인권위 상임위원 김용원이 방조한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김용원 위원은 인권위법을 마음대로 써먹고 있습니다. 인권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인권위법 13조 2항에는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될 경우는, 만장일치가 안

될 때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김용원 위원은 지난해 8월부터 회한한, 3명 위원 중 1명만 반대해도 해당 진정이 자동 기각된다라는 전례 없는 기이한 법 해석을 내놓으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제삼자 진정의 건도 자동 기각시켰고요. 인권위의 진정 기각이 결국 사건 관계인들한테 면책 요소가 되도록 유도한 바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인권위원 선정에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선정만 되면 이렇게 반인권적 인권침해 발언을 하더라도, 편법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더라도 제재할 방법 없습니까?

이를 통해서 김용원 상임위원의 편법 기각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듯합니다. 가령 위원장께는 소위 구성권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정치적 중립과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공수처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의 사례를 준용해서 인권위 상임위원도 탄핵이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쭈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이런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상임위원은 정무직, 그러니까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돼 있고요. 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무원 징계령 이런 데에 의해서 징계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면 인권위원의 신분 보장이 상당히 강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떤 대책을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딱 적절한 대안이 잘 없어서 그냥 고심 중에 있고, 가급적이면 어떻게 잘 제재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없겠는가 하는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의식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어떤 대책이 마련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해당초 이 선출, 선발 절차부터 우리가 정말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고심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인권위 내의 상임위원의 이러한 막말들이 국민들한테 아마 절망감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소희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김소희 위원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까?

김소희 위원님께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다음 순서인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시작하기 전에 김용원 위원에게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잠깐 시간을 다시.....

○**위원장 박찬대** 5분으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앞서 강유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어떤 의미에서 충분한 자격이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정 위원** 인권위법에는 어떻게 인권이 정의돼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지금 법령을 이 자리에서 낭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김용원 위원이 생각하는 인권은 뭐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 사회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고민정 위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본인이 실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보신다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들어가십시오.

PPT 하나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송두환 위원장에게 제가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충상 위원의 발언인데요. 읽어 드리기가 민망해서 글로만 보여 드리고,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발언은 반인권적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민정 위원** 그리고 김용원 위원 다시 일어나 주시고요.

해당 발언에 대해서 반인권적 발언이라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동료 인권위원의 발언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고민정 위원** 동료 인권위원의 발언을 평가하라는 게 아니라 저 해당 발언에 대해서 인권적 개념에서, 기준에서 적합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여쭤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왜 안 하는 것이지요?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여기 국회에 나왔습니까?

○**이소영 위원** 성실하게 답변하십시오.

○**박수현 위원** 말씀하세요!

○**고민정 위원**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끊고 이것은 경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 위원장님, 시간 잠깐 멈춰 주시지요.

○**위원장 박찬대** 예, 잠깐 멈춰 주세요.

○**고민정 위원** 지금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제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의견을 강요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의견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는 국회이기 때문에.

○**윤건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해도 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질문은 얼마든지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잠깐 멈춰 주시고요.

동료 위원이신 윤건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 질의 중에 발언을 좀 보태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우리 해당 기관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질의에 대해서 기관에 소속돼 계신 분들은 답변하는 게 당연합니다. 표현의 자유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완전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답변하지 않으려면 뭐 하러 나왔습니까? 공무원이 월급 왜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질의합니까? 선별적으로 자기가 답변하고 싶은 답변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그냥 묵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찬대**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지금 김용원 위원께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질문……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이고 공직자로서 나오신 거잖아요. 어떤 질문에 대한 내 판단이 없으면 ‘없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있으면 있는 걸 말씀하실 의무가 있는 거지요.

답변을 회피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해서? 그러면 모든 답변을 거부하고 그냥 집에 가시면 되겠네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답변을 거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고 또 설령 평가하는 어떤 내심의 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심의 판단까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정 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예, 3분으로 맞춰 주세요.

○**고민정 위원** 들어가십시오.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충상 위원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서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를 허위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면서 고소를 했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표현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오로지 비정상적인 성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치부하는 인상을 줘서 남성 동성애자들 전반에 모욕감을 준다. 또한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또는 더 나아가 비하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남규선 위원님 계시지요? 잠깐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가시고요.

해당 발언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진정이 있었고 차별시정소위원회에서 관련한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남규선** 예, 지난 수요일에 차별시정위원회에서 해당 진정사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어떤 결론 나왔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남규선** 위원님, 위원회는 진정사건을 심의 의결한 후에 결정문을 작성해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결과 통지를 하는데 이제 결정문 작성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정문 완료 전에 심의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조기에 완료해서 당사자 통지 후에 위원님께 결정문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이미 결정이 다 났고 해당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데 아직 작성을 안 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남규선** 결정한 후에, 의결한 후에……

○**고민정 위원** 의결 언제 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남규선** 수요일 날 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안 돼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남규선** 수요일 날 결정을 했고 이를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쓰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남규선** 위원들 세 사람이 그 결정문에 대한 내용을 합의를 해야 됩니다.

○**고민정 위원** 의결의 요지도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남규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건 자체는 각하를 했지만 의견표명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고민정 위원** 의견표명을 한다는 이유는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남규선**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남규선** 예.

○**고민정 위원** 해당 표현은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두환 위원장님, 위원장도 추천위를 통해서 추천이 되셨고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고민정 위원**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인권위원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국제적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권위원의 자격이 없는 게 맞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거기에 부합한 인물이 선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부합하지 않으면 인권위원으로 자격이 없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일반론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종양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김종양 위원님 나오셨습니까?

국민의힘 김종양 위원님 불출석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서울 종로구 곽상언 국회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인권위 진정 처리 절차가 보통 진정 접수, 사건 조사, 위원회 의결 그리고 당사자 통보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2항을 보면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14일에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긴급구제 신청을 하고 제삼자 진정을 접수한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곽상언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2023년 12월 28일 그리고 2024년 1월 17일에 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에서 당시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외압이 있었다는 보고서는 아니고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가 있는데 약간 차이가 나는 결론이 나서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 사건 조사보고서를 아직까지 검토하시지 못하셨나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그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그냥 현황 파악 수준에서.....

○곽상언 위원 사건 조사보고서 아직 못 보신 거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그냥 현황 파악을 위해서,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내용입니다만 제가 그냥 일별을 한 적은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리고 검토를 하셨는데 혹시 요약보고서를 보신 건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요약보고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곽상언 위원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2024년 1월 30일에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이 진정에 대해서 기각 의결을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곽상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아까 그 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2항을 보면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1월 30일에 이 해당 진정을 기각 의결했는데 그 당시 몇 명 위원이 출석하셨고 몇 명 위원이 찬성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그 소위원회 구성이 위원 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세 분 모두 출석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아까 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이 되지 않아도 자동 기각되도록 처리했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기각 의견이 2명이고 인용 의견이 1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반대되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어떻게 알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그 당시에……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기각 의견 2명, 인용 의견 1명이 맞습니까, 아니면 3명 다 기각 의견이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각 의견이 2명 그리고 한 분은 기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기권이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곽상언 위원** 그러면 아까 그 법률에 따르면 구성위원 3명 이상이 출석했으니까 회의를 개의하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리고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3명이 안 되고 2명이 되면 의결하면 안 되는 거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위원님, 사실은 바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

○**곽상언 위원** 제가 일단 질문드리는 겁니다. 의결하면 안 되는 것 맞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명 찬성이 있어야 기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되기 위해서 좀 더 토론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곽상언 위원**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게 되면 의결 요건에 맞지 않는 의결이 벌어진 것은 맞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그 법 해석을 달리해 가지고 ‘3명 찬성이 안 되고 1명이라도 기권이거나 뭔가 다른 의견을 얘기해서 3인 찬성이 안 되면 그건 어느 경우에나 그냥 다 기각하면 되는 거다’ 이런 해석을 해 가지고 그게 본인의 소신이라고 하면서 기각 결정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것에 대해서 위원회 자체 내에서는 다시 시정하거나 그런 절차가 없어서 그게 지금 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곽상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노종면 위원** 저도 김용원 위원님이 마이크 앞에 나간 때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955년 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송두환 위원장께 말버릇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송두환 위원장께서 확인하셨는데 혹시 송 위원장님 출생 연도를 아세요? 모르세요? 알려 드릴까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노종면 위원** 1949년 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연세가 많으신 건 알고 계시고.

검사 출신이시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검사에서 퇴직하시기 전에 룸살롱에서 경찰과 몸싸움한 일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관련돼서 징계받은 적은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것을 징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경고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해수부장관에게 일본도를 보내고 할복자살을 권유하는 편지를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편지를 발송하지는 않았고 일본도를 보낸 사실은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일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6월 13일 인권위 회의에서 ‘인권 장사치들’ 발언을 하신 적이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습니다. 비공개 회의 때 한 발언입니다.

○**노종면 위원** 같은 자리에서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비공개 회의 때……

○**노종면 위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극히 제한된 기자를 상대로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노종면 위원** 김용원 위원께서는 인권위 6개 소위원회 가운데 2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하나는 경찰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고 또 하나는 군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노종면 위원** 모든 소위원회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인권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의 규모나 심도나 더 막대하겠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노종면 위원** 그래서 어느 위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본다면 인권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좀 더 인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소위원회에서 기각돼서 전원회의로 올라가지 않은 사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구체적인 숫자를.....

○**노종면 위원** 44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기억하고 있지는 않고 소위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 숫자가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

○**노종면 위원** 44건이 기각됐습니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총 95건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닙니다. 기각된 건수는 그것보다 훨씬 많고요.

○**노종면 위원** 그 사실관계는 나중에 다투시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니요, 그것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시는 건데 소위원회에서 기각한 사건들은 수백 건에 이릅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노종면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최근 5년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95건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최근 5년간으로 따지면 아마도 수천 건이 넘을 것이고 1만 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노종면 위원** 의안에 올렸는데 기각된 것이 수천 건에 이른다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지금 아마도 알고 계시는 부분은 인용 의견으로 상정이 됐는데 기각 결정이 된 건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전혀 사실하고 다릅니다. 기각 의견으로 상정된 안건을 의견 일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기각한 건수가 38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조금 이따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것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진정 건을 기각하셨지요, 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긴급구제신청 사건.....

○**노종면 위원** 진정 건 기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긴급구제신청 사건과 진정 사건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 전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가 보류돼야 된다는 개인 성명 내신적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개인 성명은 아니고 군인권보호관으로서,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발표를 한 것이고 인권보호위원회의.....

○**노종면 위원** 그게 지난해 8월 9일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노종면 위원** 그리고 기각되기 전에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지요? 8월 14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추가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질의 마치셨습니까?

노종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위원 질의 차례인데요. 불출석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위원입니다.

8년 만의 시간을 보내고 22대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첫 회의에서 이런 질의를 해야 하냐라고 하는 자괴감을 너무 느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이나 고민정 위원님 또 노종면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파괴위원회로 불릴 만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 질의로 대신하고 좀 다른 차원의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송두환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새롭고 논쟁적인 인권 과제의 발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농어촌지역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16일에 인권위가 농어촌지역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농촌 문제를 인권 문제로 접근한 첫 번째 인권위 권고였다는 점에서 농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세한 권고의 내용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농촌은 지방소멸이라는 말로 표현되듯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역시 화면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 농가 소득에서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1.9%,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농촌에 가 보면 너무나 심각한 그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농촌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서 송두환 위원장께서 현장을 좀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있으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제가 위원님이 기대하신 만큼 충분하게 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기후위기 그리고 그것이 농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으로 기억이 되고요, 강원도 지역의 몇 곳을 선정해 가지고 또 업종, 농업 형태도 몇 가지 유형을 선택해서 둘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박수현 위원** 좀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2019년 이후에, 이 권고 이후에 농촌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인권위 차원의 권고가 없다라고 하는 점은 위원장의 현장 방문 등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쉽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노인 문제를 포함한 여성, 아이들 문제까지 대상을 넓혀서 인권의 문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권고의 영역도 문화, 체육, 국가 행정, 정보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농촌 현장도 자주 방문해서 위원장이 직접 챙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짧게 이렇게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의회의가 열리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그 문제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박수현 위원** 올해 여칠 전에 6월 18일 날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는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민주당의 170명 전원이 공동발의를 참여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존엄한 인간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고하신 제 선친께서 평생을 가슴에 담고 있었던 이 말씀을 작고하시기 3일 전에 저에게, 그때 19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만 비로소 돌아가시기 3일 전에야 말씀하실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입니다.

이 일본의 사도 광산 등재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국제사회에 촉구하거나 해야 될 대응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공감하는 문제고요.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수민 위원 질의 순서인데요. 불참하셨으므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시병 부승찬입니다.

인권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몇 개월 안에 처리되는 거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저희들 본래 규정상 180일 안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황입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진정을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멈춰 선 적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멈춰 선 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승찬 위원** 멈춰 선 적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위원회 전체가 멈춰 섰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부분적으로는 잠시 좀 정지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장면은 있었다고 봅니다.

○**부승찬 위원** 왜 3개월 정도 멈춰 선 적이 있었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위원회 전체 차원은 아닙니다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침해구제제1위원회 3개월 정도 멈춰 선 적 있었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거의 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부승찬 위원** 왜 멈춰 섰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그 당시에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위원장에게라고도 볼 수 있지만 위원회에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요구사항을 내고 그것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는 위원회 운영, 업무 처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와 관련돼서 해명 자료를 내신 적 있지요? 그 해명 자료를 낸 직원을 인사 조치하지 않으면 구제위원회를 열 수 없다.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그 해명 자료 그것 하나만을 지적한 것인지는 좀 불분명하고요. 그걸 전후해서 소관 부서장 그리고 중견 간부, 그 부분이 말하자면 소위원장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걸 불만사항으로 해서 즉각적인 인사 교체 이런 걸 요구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걸 그렇게 또 처리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부승찬 위원** 2023년 9월 8일 날 국가인권위에서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신 적 있지요? 이것과 관련돼서 이 해명 자료를 작성한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없으면 구제위원회를 열 수 없다.

그때 당시에 적체된 안건만 몇 건인지 아십니까? 300건입니다. 개인 소유물입니까? 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돼요?

김용원 상임위원님,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요구사항이 뭐니까? 열지 않은 사유가 뭐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침해구제제1위원회의 조사부서의 장이 아까 말씀하신 해명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해명 자료는 허위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조사부서의 장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상황에서 침해구제제1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부적절하고 또한……

○**부승찬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의 결정을 계기로 해서……

○**부승찬 위원** 잠깐만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소위원회 의결 방식에 대해서는……

○**부승찬 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그런 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운영합니까? 진정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저의 운영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승찬 위원** 뭐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의 소위원회 운영 방법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승찬 위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 소유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승찬 위원** 한두 가지인지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모든 업무 처리를 매우 적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승찬 위원** 보도자료 2023년부터 올해까지 개인 명의, 상임위 명의로 나간 게 몇 건 이에요? 국가인권위 공식 보도자료가 아닌 상임위 명의로 간 게 몇 건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상임위원실에서 상임위원 명의로 보도자료를 낸 적은 있지만 개인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렇게 가능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승찬 위원** 법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질의 좀 정리해 주시고요.

○**부승찬 위원** 보도자료 작성·배포 매뉴얼이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 매뉴얼이 상임위원에게 적용되는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승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상임위원님, 지금 이 자리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좀 더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미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힘 추천 이충상 상임위원과 윤석열 대통령 지명 김용원 상임위원의 막말과 반인권적 언행으로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임기 초부터 문제되었던 두 분의 반인권적 인식과 폭력적인 언사가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이충상 위원의 내부 갑질 진상조사 요청 기억하시는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서미화 위원** 당시 이충상 위원의 직장 내 갑질로 괴롭힘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직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치되었

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그 부분에 관해서……

○**서미화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내부감사를 진행을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 가지고 좀 신속하게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조치가……

○**서미화 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인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이 사건을 제가 공문까지 보내면서 빨리 조속히 진상조사 해서 결과를 알려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결과를 제가 못 받았고요.

1년이 지난 일인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충상 위원의 갑질은 내부 갑질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난리도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출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갑질 진정·상담 의뢰 내용입니다. 내부 갑질로 유명하신 이충상 위원님께서 지난 4월 모 공공기관에서 갑질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위직 상임위원이고 법관 출신이니까 무작정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설명을 하는 직원에게 말대꾸를 하느냐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험한 말도 있지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피해 직원이 정신적 충격을, 정신적인 고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상담 의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사실은 그것을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서미화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그 당시에 상담직원이 상담을 요청한 분에게 밟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안내하고 그분이 그것을 참고하겠다고 하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후속 조치, 그러니까 다시 찾아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서미화 위원**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진정·상담 의뢰되었지만 그냥 종료된 것이네요, 진행이 안 되고?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그 당시에는 아마 상담으로 종결한 것 같습니다.

○**서미화 위원** 상담으로 종결한 거라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서미화 위원** 이것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갑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부 갑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갑질인데도,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밖에서 다른 기관의 직원을 이렇게 갑질을 했는데도 종료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전에 제가 요청한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내부감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졌다면 타 기관에까지 가서 이런 갑질을 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미화 위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이라는 사람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갑질을 하고 다니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갑질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 참으로 참담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충상 위원의 임기는 아직도 1년 정도 더 남았지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언제 어디서 또 갑질을 할지 모르는 분입니다. 인권위원회 내부 갑질 조속히 조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미화 위원** 내부감사 외부 인사를 구성해 가지고 확실하게 결과 내셔서 의원실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예, 알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김용원 위원님.

잠깐 멈춰 주세요.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화면 영상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2019년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장애인 체육계 미투 사건입니다. 의원실에서 김용원 위원의 이력을 조회해 본 결과 이 사건의 가해자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미성년 장애인 선수의 신체부위를 만지면서 상습 성추행을 하면서 1심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고요. 당시 대형 로펌 법무법인인 한별의 대표 변호사였던 김용원 위원이 변호를 맡았습니다.

당시 김용원 위원은 장애여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해임할 의도로 말도 안 되는 허위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여기 계신 김용원 위원님께서 장애여성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허위 주장을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무고를 주장했지만 다행히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이 사실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예, 제가 피고인의 변론을 담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국가인권위원회로서, 그 변론을 한 당사자로서 인권위원회로서는 과거 변론이기는 하지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은 정말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모든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들의 주장이……

○**서미화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어요. 인권위원회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미화 위원** 간단히 답변 주시라니까요.

인권위원회로서 장애 피해 여성의 하지도 않은 허위 주장을 본인이 해서 기각된 사건이에요. 그렇게 설명하실 만큼 당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그 사건에 있어서 판결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미화 위원** 위원님, ‘예, 아니요’로만 말씀하시라고요.

그렇게 당당하시면 인권위원 사퇴하시고 밖에 나가셔서 하시던 일 계속 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인권위원회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

할 것입니다.

○**서미화 위원** 그만 답변하시고요, 제 질의시간이에요. ‘예, 아니요’로 간단히 답변하시라니까 왜 이렇게 변명이 많으십니까?

그렇게 당당하셔서 가해자 보석까지 해 주시고.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순수한 무료 변론을 한 사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답변 그만하시고요, 제가 질의합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거면 나가서 하시지요, 하시던 일이시니까.

자,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니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제가……

○**서미화 위원** 김용원 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직접 나서서 무료 변론을 한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답변 그만하시고요.

국가인권위원으로서 양심이 있으시면, 일말의 양심이 있으시면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충분한 양심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김용원 위원님의 변호 이력 알고 계셨어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성폭행 사건 변론, 저는 사실 그것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랬어요?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건입니다. 이런 부적절한 변론을 했을 정도면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 1도 없었고 인권위 현재의 사태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원 위원님 이런…… 예측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원 위원은 대통령실 지명자인데 규정상 인사 검증을 거침에도 이런 검증 없이 됐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 지명하고 또 김용원 위원은 그것에 맞추어서 대통령 거수기 노릇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원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말의 양심이 있으시면…… 인권위원 안 맞는 것 같아요.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김용원 위원님, 앞에 나오시지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인권위원장 도전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지금으로서는 인권위원장은 도전한다, 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장식 위원** 도전하실 여지가 있으신 거네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장식 위원** 들어가시고요.

이충상 인권위원께서 인권위원장에 도전하신다는 기사가 18일 날 나왔습니다. 오늘 자 기사를 보면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두 분이 인권위원장 도전과 관련해서 두 분 중에 누가 하는 게 좋겠다 또는 누구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상의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글쎄, 인권위원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대화를 한 적은 있지만……

○**신장식 위원** 대화한 적 있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그렇지만 누가 더 적합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장식 위원** 상의하신 적은 있으시네요, 두 분이 인권위원장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상의한 적 없습니다.

○**신장식 위원** 이야기는 했지만 상의한 적은 없으시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신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충상 인권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사실 자리에 계셨으면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페이지 보시면 남성 동성애자 혐오 발언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사고 발생 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난이었다고 보지 않는다’, ‘5·18보다 더 귀한 참사인가’라고 물었고요.

‘군 훈련소 내무반에 괴롭힘 없다’, ‘훈련소에서는 자살, 자해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군 훈련소 사망 사건 있었습니다. 훈련병 사망 사건 있었고 해병대 훈련병 위해서 군인권 교육 필요하다는 안건에 대해서 ‘군기가 셀 필요가 있다’ 해서 ‘군인권 교육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노동인권과 관련된 발언도 아주 처참합니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파업공화국 될 위험이 있다’, ‘조악하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심지어 ‘일본 공산당조차 추진하지 않는 법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또 이마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조가 진정사건에서 상임위원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 발언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이충상 위원, ‘정부를 까겠다는 것이다. 인권 상황보고서 발간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격 없는 인권위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3항 보시면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인정되는 사람이어

야 한다라고 하는데 위 규정에 어긋나는 분들은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고 임기 중 면직, 해임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인권위원회법에 탄핵 대상으로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원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인권위원회법 제56조 인권옹호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인권위원이 인권옹호 업무를 방해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니까 처벌 규정이 없어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직폭행처럼 그 직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인권위원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을 개별 법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더 넣어서라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하고 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위원회의 어떤 공식적인 의견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인권위원의 신분보장과도 약간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야 되겠고……

○**신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두 분이, 이충상 김용원 두 분이 인권위원장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충상 주의보 발령합니다. 노약자, 어린이, 청소년, 사회적 소수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충상 김용원 두 분 의견, 말씀 주의해서 들으시고요. 인권위원장 절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 위원** 질의에 앞서서 김용원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제 질의시간이 5분밖에 안 돼 가지고요 짧고 굵게 답변해 주십시오.

채 해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 작년 8월 9일 날 당시 국방부 조치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셨는데 본인의 의지 맞으시지요, 위원님? ‘예, 아니요’로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날 제가 성명으로 발표한 내용은……

○**윤건영 위원** 내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국방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외압에 관해서 낸 것이 아니고요.

○**윤건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 기록을 회수해 온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게 그겁니다.

다음 질문 할게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8월 14일 날 김 위원께서 국방부장관하고 통화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본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전화가 온 겁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제가 통화를 하고 싶다고, 8월 9일 자 그 성명의 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내용의 근거를 왜 하게 됐는지……

○윤건영 위원 그러면 국방부장관에게 전화가 온 거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다시 또 물을게요.

군인권을 담당하는 인권위 상임위원께서 박 대령 논란이 한참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에게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게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인권위에서는 그런 것 설명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적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하고 통화할 때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내용을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날 통화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김 위원께서 8월 9일 날 입장문과 그 이후의 행동이 백팔십도로 바뀝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백팔십도로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 잠시만요, 시간 좀 끊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대 예.

○윤건영 위원 시간 좀 끊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 질의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김 위원의 답변하는 태도가 질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까지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다음번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 위원께서 국방부장관에게 통화 요청했는데 답이 없다가 8월 14일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그 이유가 하나 딱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가 8월 14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건영 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싸우려고 나오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윤건영 위원** 자기주장하려고 나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제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건영 위원** 제가 질의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데 14일 날 오전에 군인권센터에서 긴급구제 신청을 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 국방부장관이 ‘아, 급하구나’ 해서 바로 김 위원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건 잘못된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위원님,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제가, 본 위원장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요 위원님의 질의를 충분히 들으시고 필요한 답변만 해 주세요. 질의 중에 그렇게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잘 알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지금 서 계시는 곳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일반인도 아니고 공직자로서 나와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겁니다.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애초 8월 9일 입장문과 국방부장관의 통화 이후에 김 위원의 입장은 백팔십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고요. 따라서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8월 9일부터 8월 14일 그 어간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전혀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인권위 담당 업무를 용산 대통령실의 어느 비서관실에서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알지 못하는 게 자랑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법률비서관실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마도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윤건영 위원** 잠시만, 또 또 끼어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보장하기 위해서 따로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건영 위원** 김 위원, 또 끼어드냐고요. 여기 국회의원하고 싸우러 왔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닙니다.

○**윤건영 위원** 위원장도 몇 번이나 경고를 했잖아요.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뭘 잘했다고 지금 여기서 꼬박꼬박 이야기를 합니까?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아니면 아니다, 맞다면 맞다. 변명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국민들 인권 지키는 데예요. 그런데 귀하께서 하신 걸 보면 인권을 파괴한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박 대령의 인권을 파괴한 거라고요. 그걸 모르고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건영 위원** 또 또 그럼니까?

제가 볼 때 김 위원은 자격이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단 1초라도 있을 자격이 없어요. 들어가세요.

인권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발언대에 와서 발언을 하셨던 김 위원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긴급구제에 대한 신청도 기각하고 또 소위에서 합의 처리가 원칙인데,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송구합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임기 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사실 지금 침해구제1소위가 위안부 수요집회 사건에 관해서 어느 날 3명 중에 1명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건 어떤 경우에도 기각이다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그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인권위원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인권위원께서 그 부분을 어떤 이론을 세워 가지고 소위 자동 기각 또는 자동 각하로 처리해야 된다, 권고를 결정할 때만 3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3인 찬성이 안 되는 경우는 다 기각하면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서요, 그걸 사실 우리 인권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만들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걸 인권위원 11명 중에 다수인 6명의 의견으로 하여튼 발의안을 만들고 오니까 실은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13조 1항·2항의 해석론에 관해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구상해 가지고 왔고 실은 종래 해 왔던 인권위원회의 해석과 종래 법원의 해석이 맞다라고 하는 쪽에서도 그 새로운 이론은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론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문건을 내고 그래서요. 실은 그게 한 20건이 넘습니다, 양쪽의 각자 의견을 표시한 것이.

그리고 나서 지금은,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사건이 법원에 가서 지금 법원이 판결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결론을 보고 최종적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이후에 하도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 사건이 많아 가지고 정족수에 관해서 논의가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잘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 회의가 때로는 공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요. 그렇게 못 내리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제가 정말 부끄럽고 좀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찬대**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 차례인데 오늘 불참하셨으니까요.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균 위원** 경기도 안성 윤종균입니다.

오늘 운영위 자리에 있는데 인권위원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우리 인권이 조롱받고 있는 이런 현장을 목도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분노도 일고 그렇습니다. 우

리 인권위원회를 만드셨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장면을 보고 계시면 굉장히 참 슬퍼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송두환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서 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회의록 음성파일을 제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구절을 보지는 못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회의록 음성파일을 제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그런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윤종군 위원** 예, 그러면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록의 음성파일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글로 된 회의록만 봐서는 상세한 분위기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저도 기사로 김용원 위원님에 대한 기사는 많이 봤는데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참 상상을 초월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음성파일로 제출을 해 주시면 그동안 인권위에서 있었던, 인권위원들에 의해서 자행된 막말과 반인권적인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한 뉘앙스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음성파일 제출, 내부에서 논의하셔 가지고 제출이 가능한지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위원님, 당연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 검토는 할 것이고요. 저희 회의 공개의 원칙에 비춰 보면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회의록과는 달리 음성파일을 사실은 저희들 회의록의 옳고 그름, 정확하게 된 건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쓰고 그것 외에 음성파일을 따로 공개한 전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국회와 같이 영상 중계를 하는 것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저희들 좀 더 하여튼 검토할 사항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다른 기관보다도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직 안에서 인권위원들에 의해서 반인권적인 이런 발언들이 횟행하는 것은 엄중하게 국회에서 감시되고 경제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금부터 제가 묻는 것이 인권침해나 차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짧게 일단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 없다면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무지나 편견으로 인해서 HIV 감염인의 병증에 대해서 냉담한 태도나 편협한 시각을 공개 석상에서 드러내면 차별이나 혐오 발언에 해당됩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직무상 의무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상급자나 그렇게 간주되는 자가 자신의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공개적인 망신이나 모욕 주기를 지속하면 차별에 해당됩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타인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공개 석상에서 편협한 의견을 표현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됩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실제 어느 장면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하는 것은 구체적인 전후 사정과 실제 발언을 놓고서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종군 위원**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을 가리켜 ‘놀다가 발생한 사고다’ 또는 비슷한 표현을 공식 석상에서 공공연하게 모욕하는 언사는 차별에 해당됩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공식 회의 등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참석한 증인·방청인을 향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기어들어 왔다’ 혹은 그에 비슷한 표현을 쓰며 쫓아내라고 모욕하는 언사를 사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됩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해당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오늘 유일하게 불참한 이충상 인권위원이 공식 석상에서 했던 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3항에 ‘위원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그동안 오랫동안 인권위원회에서 함께 일을 해 오셨는데요. 우리 송두환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충상 인권위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특정인을 정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제 권한 범위도 넘고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도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 합니다.

○**윤종군 위원** 많이 고민해 주시지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윤종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임광현입니다.

인권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서 무엇보다 먼저 최근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신뢰에 위기를 초래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기관장으로서 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감을 표명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권위 관련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극도로 떨어져 있는 신뢰의 위기를 맞았다는 점 그리고 인권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입니다.

첫째로 인권위의 신뢰 위기를 불러온 일부 상임위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하여튼 그렇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상임위원이 오히려 인권침해와 혐오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충상 상임위원이 피진정인으로 제기된 3건의 진정이 있었으며 이를 전인 6월 19일 제5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피진정인의 표현은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고 의결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혐오 표현의 금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인권위원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연 최소 1회의 혐오 표현 예방교육을 수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인권위 상임위원의 혐오 발언에 대해서 인권위 상임위에서 위원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유사한 사례가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광현 위원** 둘째로 인권위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위원이 소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4개월간 안건이 2023년 8월 1일 96건에서 2023년 12월 7일 3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안건을 무더기로 심사하게 되면 충실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구성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인권위원의 행동강령 위반 등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원 위원님, 잠깐 마이크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은 지명권자가 누구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임광현 위원** 김용원 위원께서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부산본부 상임공동대표로 윤석열 대통령 출마 선언 당시 공개 지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김용원 위원님은 검사 출신이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임광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권위의 직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권위원의 직무는. 그래서 전문성과 자질이 있는 인권위원을 선발해야 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충상 위원은 국민의힘 선거캠프 출신이고 김용원 위원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이력이 있습니다. 대통령 보은 인사나 다른 없는 상임위원들의 기행으로 인권위에 위기가 왔습니다.

유엔 인권조약기구 등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한 내용 등을 보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올해 6월에 파리원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임무를 효과적·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권고한 위원 선출·임명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확보하고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필요한 입법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의원실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 국민의 인권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권위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김용원, 이충상 두 위원이 오는 9월 차기 인권위원장 자리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와 제16조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인권위원장장을 임명하는데 인권 감수성이 없는 인사에게 인권위원장 자리를 맡길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정말 간략하게 그냥 언급만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처음에 업무보고, 인사말씀을 드리는 자리에 사실 인권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은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 제가 그 부분을 놓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앞의 서두는 비교적 좀 정형적인 인사말씀을 드리고 그런 취지를 결국 본질의응답 시간에 어차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국제 모든 조약기구, 특히 파리원칙에 규정된 것이라거나 또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어떤 평가위원회 그런 데서 대한민국 정부에 인권위원 선출에 관한 단일 독립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라라고 하는 권고를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고요.

지금 추천 경로가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추천 경로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단일 독립 위원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결국 그건 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국회에서도 그 부분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종욱 위원님 나오셨습니까?

국민의힘 정성국 위원님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이 많은 질의 하셨지만 화면을 보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실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2024년 2월 22일과 26일 김용원 위원이 위원장께 ‘실형을 살아야 하는 범죄자’, ‘악질적인 소리’라고 발언했다는데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사실 정확한 위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을호 위원** 2024년 3월 11일 전원위에서 김용원 위원이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일본군 성노예 타령’이라고 발언했다는데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을호 위원** 다음은 이충상 위원의 발언입니다.

2023년 6월 26일 전원위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피해자들이 놀기 위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데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그런 취지의 발언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정을호 위원** 23년 10월 30일 전원위에서 인권위 사무총장께 ‘자신이 인권위원들의 상관인 것처럼 하는 무식하거나 오만방자한 행동’이라 발언했다는데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사실 위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취지의 발언은 들었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반인권 발언을 하는 사람들,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을호 위원** 이런 반인권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으로 지명하고 결국 대한민국을 인권후진국으로 추락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께 사죄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날치기로 기각시키고 막말과 혐오 표현을 남발하는 김용원 위원, 이충상 위원은 국민께 사죄하고 인권위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충상 위원과 김용원 위원의 발언 때문에 인권위 회의가 난장판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고성과 막말을 막으려면 차라리 회의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잘 적극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을호 위원**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하는데요. 인권위법 제14조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의사는 더욱 확대하여 공개돼야 한다라고 돼 있고, 기존의 방청 제도를 확대하거나 의사진행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시어 의원실로 공개 확대 방안을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저희들 검토를 좀 하고요. 검토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보고드릴 내용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예, 인권위 의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권위 전원위원회 안건 목록을 보면 작년에 29개 안건 중 재상정한 안건이 2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58건 중에 무려 44건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데 계속 이런 과행을 방치하고 계시는 이유, 정상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제가 사실은 모든 사정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적어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역부족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실하게, 뭐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 주재·통제·제어 이런 것이 사실상 좀 어려워 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정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을호 위원**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보면서 위원장님의 심려, 마음을 많이 이해하고 앞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1년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공포하면서 충분한 독립성의 장치를 마련한 만큼 국민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권위원회 상황을 보면 인권위의 설립 취지에 부응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권위 과행의 책임을 묻고 인권위 정상화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다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김용원 위원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김용원 위원님은 인권위 상임위원에 지명될 때 어떤 자격 요건을 충족해서 되셨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인권위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

○**정진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법에. 거기의 어디에 해당됐느냐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
.....

○**정진욱 위원** 본인의 자격 요건도 모르고 임명이 됐나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거기에서 나열하고 있는 자격 요건이 몇 가지가 있고요.

○**정진욱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구체적으로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는

뜻이고요.

○정진욱 위원 예전에 검사 하신 것도 잊어버리셨나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지나친 말씀입니다.

○정진욱 위원 검사 10년, 그게 자격 요건 아니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닙니다.

○정진욱 위원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러면 또 다른 것 어떤 게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제가 법령을 좀 봐도 될까요?

○정진욱 위원 됐습니다.

다음 여쭙겠습니다.

누가 지명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대통령 지명입니다.

○정진욱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2018년부터 인권위법 취지에 따라서 대통령이 지명할 때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명하셨나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제가 상임위원이 될 때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정진욱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거쳐서 되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정진욱 위원 예.

해병대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가 조사하고 또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냈는데요. 그런데 조사 대상자인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것은 조사결과보고서 나오기 한참 전의 일입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지요, 전이지요? 물론 전이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제가 통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정진욱 위원 아, 그랬군요. 가까운 사이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욱 위원 어떻게 해서 전화를 하시게 된 것이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제가 8월 9일 자 국방부장관에 대한 권고사항에 관하여 그 취지·배경·이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통화를 하고자 한 겁니다.

○정진욱 위원 예.

군인권보호관이시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정진욱 위원 이번에 박 훈련병 사망한 것에 대해서 직권조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직권조사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여러 인권위원들이 토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욱 위원 아니, 군인권보호관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원래 직권조사라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 사건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 있을 때……

○**정진욱 위원** 그렇군요?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지 않으면 못 하는군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진욱 위원** 그러면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못 하네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진욱 위원**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어떤 취지인지 아시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수사 과정에서 흔히 놓칠 수 있는, 우리가 수사에만 모든 걸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직권조사의 취지는 여러 각도에서 위원님들 사이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좋습니다.

본인이 인권위원장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제 개인에게 그런 자격이 충분한지 안 한지를 질문하시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욱 위원** 왜 적절하지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것은 임명권자나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욱 위원** 그러면 도전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글쎄요.

○**정진욱 위원** 제가 얼마 남았습니까, 시간이?

○**위원장 박찬대** 1분 남았습니다.

○**정진욱 위원** 들어가십시오.

인사가 만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권위원,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다면 똑같이 질문할 겁니다, 대통령의 자격이 있느냐고. 이런 분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이 맞는지 우리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주질의까지 계속해야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회의 시작한 지 2시간이 경과했지만 주질의까지 힘내서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지연 위원님 안 나오셨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먼저 인권위 상임위 회의 내용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송두환 위원장님, 기억나시겠습니다. ‘얼빠진 소리, 사무처 따위가 잠꼬대도 유분수지’,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인권위원회로서 이런 막말 대놓고 하는 회의라는 건 정말 막장 회의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윤종군 위원님께서 회의록 음성파일 제출 요구를 하니까 답변으로 회의 영상 공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이 상황에 대해서 혐오나 차별적인 막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회의 통제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이 인권침해가 많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권위야말로 회의뿐만 아니라 대민 접촉을 할 때 모든 것을 영상 녹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거나 또는 논의되거나 하는 게 없었는데요.

○**추미애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정권을 만나고 보니 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이제는 좀 검토……

○**추미애 위원** 정말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용원 위원님은 저쪽에 좀 가 주십시오. 제가 얼굴을 보면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단초가 된 윤 일병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서 각하 결정하셨지요? 항의 방문한 윤 일병 유가족을 감금 및 공무집행 방해, 불법 건조물 침입 혐의를 물어고발을 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저희 인권위원회의 시급성……

○**추미애 위원**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인권위원이 무서워서 인권위에 진정을 하러 가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권위 소위를 구성한, 만들어 둔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인권위원장님, 소위를 구성한 취지는 인권위의 전문성도 살리고 될수록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를 구성했지 않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위원** 그런데 만약에 기각을 일삼고 오히려 인권을 짓밟고 입맛에 맞는 대로만 한다 그러면 오히려 소위가 만행, 남용을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중에 일부라도 의견 불일치가 있다면 기각하거나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전원회의에 회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위원** 김용원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추진한 사람이고요 2001년 인권위 설립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공동발의한 사람입니다. 이 인권위의 만행을 보고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런 세상도 있을 수 있구나.

김용원 상임위원님은 지금 진정 당했습니까? 아까 그러한 기각이나 각하 또 막말, 혐오·차별 발언 이것으로 지금 진정 당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진정 당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위원** 아직은 진정 당하지 않았습니까? 진정 당한 입장이 아니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진정 당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찬대** 마이크 좀.....

○**추미애 위원** 진정 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그렇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기관으로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진정을 할 수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추미애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의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백재현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혁신당 원내대표로서 처음 예방한 일정이 공무직 노동자분들 그리고 또 국회사무처의 20대·30대 젊은 공무원분들이었습니다.

요즘 인사혁신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20대·30대 공무원 중 10명 중에 4명이 이직을 고민할 정도로 젊은 세대의 공직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국회에 계시는 20대·30대 공무원분들의 애로사항을 먼저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방하기 전에 총장님께 찾아뵙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쭈었는데 흔쾌히 좋다고 해 주시고 많은 부분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깐 34페이지에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및 처우 개선이 제시되어 있고 거기서 특히 2023년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 부대의견에 명시된 명절상여금 인상, 가족수당 신설 등 추진이 명시되어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개혁신당도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겠다라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공무직 노동자분들이나 사무처 공직자분들을 봄니까 몇 가지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 보여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관리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 대기 공간이 없어 가지고 냉난방 시설이 원활하지 않은 복도에다가 가벽을 세우고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채용시험 국회에서 하게 되면 보통 휴일에 하는데 그 감독을 20대·30대 젊은

공무원들이 가신다고 해요. 그런데 수당이 너무 적고, 휴일을 반납하고 하는 건데. 그리고 점심시간이 1시간으로 굉장히 짧은데 도시락도 안 줘 가지고 하루종일 굶으면서 시험감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간단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아침에도 굉장히 덥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회 같은 경우에는 냉방시설을 8시부터 가동을 하는데 청소해 주시는 근로자분들께 들으니까 새벽에 청소하시는 게 너무 덥다라고 합니다. 저도 시청이나 도청 같은 다른 공공청사의 사례를 보니까 청소하는 시간 때라도 추가적으로 냉난방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회사무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정리해서 건의사항 드리면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회사무총장 백재현** 천하람 위원님이 특히 하위직·공무직 직원들한테 깊은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챙겨야 될 일을 천하람 위원님께서 챙겨 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대부분이 공감하는 내용이고 어느 부분은 이미 시정 지시를 한 바도 있고요, 계속해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백재현 사무총장님, 그간 국회 사무를 총괄해서 이렇게 운영해 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임 사무총장께서 오실 텐데 공무직 노동자분들이나 저연차 공무원 문제도 잘 챙겨봐 주셔서 인수인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참석하신 많은 국회의 간부 여러분들도 입법부를 대표하는 공직자들이신 만큼 앞으로 22대에서도 이어서 성실하게 같이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원 상임위원, 한번 잠깐 여쭤볼까요?

김용원 상임위원님, 언론인들을 싸잡아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하는 것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천하람 위원** 언론인을 기레기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언론인 전반을 그렇게 지칭한 적은 없고 비공개회의 상태에서 한 발언입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면 비공개회의 상태에서 일부 언론인에 대해서 한 얘기지만 부적절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권위원으로서는 다소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는 좀 더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유감 표시 이런 얘기 마시고 깔끔하게 사과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사과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김용원 위원님은 단상에 서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국회사무처에 대해서 야심찬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 아침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께서 발언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우리 인권위가 망가지고 있구나 하는 경각심과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돼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인권위원 11명이 국회가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게 되는데 김용원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인권위원이세요.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서 본인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력에 대한 평가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지하시면서 행동하고 발언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듭니다.

아까 노종면 위원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김선길 해수부장관에게 일본도라는 칼은 보냈지만 할복자살하라는 편지는 안 썼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저는 편지를 쓴 기억은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당시 보도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독도 해역은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인데도 김 장관은 한일공동관리수역에 포함시켜 매국노 이완용에 버금가는 매국 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을 실직에 이르게 했다. 장관직을 그만두는 것은 책임을 지는 방법이 되지 못하고 국가와 국민 앞에 사죄하는 유일한 방법은 할복자살뿐이다. 어렵사리 구한 할복자살용 일본도를 선물하니 헛되게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런 기사가 당시에 굉장히 여러 건이 보도됐는데 이게 사실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지금 2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일본도를 보낸 것은 제 기억에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일본도를 보낸 취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제가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썼는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따로 언론에 발표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기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편지까지 보냈다고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당시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하거나 정정보도를 청구해서 인용되거나 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관계는.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좀 납득되지 않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국회에 와서 거짓말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5조에 인권위원 자격이 열거되어 있는데 교수이거나 법조인이거나 인권 분야·단체 종사자거나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이소영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그중에서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었던, 그러니까 법조인에 해당돼서 지명이 되셨던 겁니다.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꼭 그것이 거기에 해당되어서 지명이 되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인권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하신 분은 아니고요 교수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 규정상으로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밖에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2호도 있고 3호도 있고 4호도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사회적 신망이 높으신 분인가요? 시민단체가 추천하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사회적 신망에 있어서 남에게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인권위원의 자격이 있는데 어떤 시민단체로부터 언제 추천을 받으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거기서 말하는 추천이 종잇장에 의한 추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정치인이 상임위원 되지는, 인권위원 되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정하고 또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위원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96년 15대 국회의원선거 출마해서 낙선하셨고, 2000년 16대 국회의원선거 출마했다가 낙선하셨고, 이후에 한나라당에 입당했다가 2008년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셔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낙선하셨고,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경선에서 패해서 낙선하셨고,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하셨고.

이런 이력을 보면 김용원 위원님은 어떤 학자거나 법조인이기보다는 계속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정당을 바꿔 가면서 출마와 낙선을 반복하신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인권위원으로 적합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인권위원은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렇게 항상 선거와 정당을 쫓아다닌 분이 인권위원 하는 게 인권위원회법 취지에 부합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한국의 정치를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한 것은 한국 국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추경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까?

국민의힘 배준영 위원님 참석하셨습니까?

그러면 주질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질의에 앞서서 김용원 위원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김용원 위원님, 하나 질의부터 시작할게요.

지금이 치세입니까, 난세입니까? 치세예요, 난세예요? 나라가 잘 다스려지면 치세이고

나라가 혼란하면 난세라고 하는데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치세입니까, 난세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난세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위원** 난세.

그러면 난세와 치세의 기준은 뭐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치세는……

○**박성준 위원** 제가 설명드릴까요?

치세와 난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법 집행이 잘 될 때 치세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거나……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만든 인권위원회는, 난세기를 많이 겪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인권위원회를 만든 것이지요. 그렇게 동의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위원** 그런데 인권위원회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치세입니까, 난세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것도 난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인권의 짓밟은 척도가 나왔을 때는 난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권위원회가 뉴스에 안 나오면 오히려 치세가 될 수 있겠지요, 인권이 잘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척도가 아니라 지금 인권위원회 두 위원이 너무 뉴스의 인물이 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충상 위원과 김용원 위원이 제가 보니까, 언론 보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 이렇게 뉴스의 인물이 됐습니까?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난세의 징표가 되고 있어요, 난세의 징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인권위원회가 불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제가 뉴스에 등장할 일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박성준 위원**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김용원 위원님과 이충상 위원이 너무 막말을 한다’. 가장 기본적인 법 이전에 상식의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인간적 도리라고 하는 부분, 인권이라는 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상식 수준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보면 상식 수준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의 수위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난세의 징표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보고 막말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악마의 편집에 해당합니다.

○**박성준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난세인 거예요. 난세에 수많은 사람이 날뛰기 시작하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면 제가 하나 다시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김용원 위원은 윤석열 정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잘 수행하고 있는 정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 정권이……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인권위원이 국가 운영의 전반에 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래요?

앞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채 해병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이 인권위에 진정을 요청한 거지요? 그런데 기각이 됐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인권의 기본적 출발은 가해자하고 통화를 하는 게 맞습니까, 피해자하고 통화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 상식으로…… 저는 법 이전에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종섭 장관과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훈 대령과 통화해서 ‘네가 왜 인권위에 이렇게 제소를 했느냐? 진정을 했느냐?’ 통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제 통화는 박정훈 대령 측에서 진정을 제기하기 전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박성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꾸 돌리는 게 아니라 군인권보호관으로서 그러면 출발을 어디에서 하느냐? 인권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랑 통화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날 박정훈 대령과 통화를 해 봤습니까?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종섭 장관과 통화를 했다고 하면 진정을 요청했던 박정훈 대령과 통화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이 왜 인권이 짓밟혔다고 생각하느냐?’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호관으로서? 그게 소임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인권위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통화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박성준 위원** 지금 가해자와 통화한 것 아닙니까, 이종섭 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가해자로서의 국방장관과 통화한 것이 아닙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누구랑 통화합니까? 그러면 과거에 인권위원이 이렇게 통화했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는 거고.

하나 더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충상 위원하고 가까우시지요? 오늘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출석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어떤 자세라고 보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해 보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성준 위원** 아니, 공직자의 자세로서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박성준 위원** 오늘 출석을 안 한 것이 공직자로서 자세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이충상 위원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불출석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자세로 인권위원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대한 인권위원회 기준이 없어요, 지금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기준을 좀 더 다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회 개의하고 2시간 반이 경과했는데요 점심시간을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주질의를 마쳤는데요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들 한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거의 다 보충질의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마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잠깐……

○**추미애 위원** 위원장님, 제가 10초만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아니라.

○**위원장 박찬대** 예, 의사진행발언.

○**추미애 위원** 아까 제가 녹취를 들려 드렸는데 편집 없이 들려 드렸고요. 본인이 시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막말은 김용원 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보충질의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 했다가 14시 30분에 국회, 인권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30초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예.

○**박성준 위원** 오늘 이충상 국가인권위원이 불출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증인으로 의결을 해서 강제 출석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박찬대 위원장님께서 국가인권위원장인 송두환 위원장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을 거부하고 국민을 무시한 행동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이충상 위원에 대한 확실한 경고 조치와 더불어서 증인 의결을 해서 출석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지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대** 국가인권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위원장 박찬대** 이충상 상임위원이 오전 중에 출석해 줄 것을 행정실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따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사무실에는 있지만 연락이 안 된다라고 저희도 아까 보고는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변동사항은 없는 상황입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현안질의 보충질의를 계속해 나가겠지만 이충상 상임위원의 일방적인 불출석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텐데요. 이것은……

○**박성준 위원** 증인 의결을 해서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박찬대** 예, 그러면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를 통해서 출석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신청하신 분들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요.

고민정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하셨나요?

○**고민정 위원**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강유정 위원님은 하셨나요?

○**강유정 위원** 예.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유정 위원** 비례대표 강유정입니다.

제가 오전 중에 말씀을 못 드린 국회사무총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국회사무총장 백재현** 예.

○**강유정 위원** 21대 개원한 2020년 5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국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몇 차례 있었습니까?

○**국회사무총장 백재현** 지금 의원회관의 사항하고 국회 본관 사항에 대한, 본관 사항은 지난번에 한 번 있었는데요 적절히 대응했고, 본관은 한 번 있었습니다. 의원회관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알기로 6월 19일 기준 서른 차례 있었습니다.

○**국회사무총장 백재현** 아, 전체적으로?

○**강유정 위원** 맞습니다.

○**국회사무총장 백재현** 금년의 얘기가 아니고요?

○**강유정 위원** 예, 21대 이후이지요.

20년 5월 30일 이후에 현재까지 벌어진 압수수색 중에 정점식 의원실, 김웅 의원실 대상으로 한 고발 사주 3건 그리고 하영제 의원실 대상으로 한 1건 말고는 전부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건데요. 한 의원실은 압수수색만 나흘 당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회사무총장 백재현**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강유정 위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수사기관이 국회를 제집 드나들듯이 들어와서 자료를 가져갔다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사무처는 이렇게 정치적 목적이 명백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국회사무총장 백재현** 삼권분립과 관련돼서도 국회를 함부로 이렇게 들락거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본관까지 와서 우리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도저히 제가 용납할 수가 없어서 잠깐 미뤘다가 그 사항은 대체로…… 그래서 그 후에 검찰에 얘기할 게 아니라 법원에 영장 청구가 들어왔을 때 좀 신중히 해 달라는, 대법원 행정처장한테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단독판사로서, 영장 발부 판사가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 적어도 합의제로 하든가 헌법기관을 압수수색할 때는 그러한 별도 절차를 밟는 제도를 도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시간이 짧아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와 같은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대통령실은 압수수색에 문을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의제출했고요. 국가보안시설 아닌 언론사도 2018년 TV조선은 언론 탄압이라고 저항해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만 이렇게…… 압수수색에 무대책인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사무총장님의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다가 법원이 압수 및 수색하도록 한 물건에만 딱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들을 수사기관이 압수하려 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그 부분이 좀 미비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압수수색을 전방위로 당했다라는 증언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협조해 주실 건지 대답을 요청드립니다.

○**국회사무총장 백재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전부 서버와 관련된 일이에요. 서버 그 부분만 같이, 우리 측에 해당되는 의원의 변호사하고 같이 붙어서 내용을 하나하나 필요한 부분들만 볼 수 있도록 챙겨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할 때 좀 신중히 해 달라는 것을 대법원 사무처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인권위원회에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이충상 위원의 문제의 그 발언들, 인권위원이 결국 그것으로 피진정인으로 인권위에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권위원이 피진정인으로 접수가 된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사실 매우 유감스럽고 그리고 전례도 별로 없는 그런 사건이라서 잘 대응하고 교훈을 얻어서 이후 인권위원의 선출이나 또 위원회 운영, 모든 면에서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적 상

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위가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 추락했나 굉장히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고요. 더더군다나 해당 발언에 대해서 누구나 다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뒷자리에 앉아 계신 김용원 위원은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보통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답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요. 지금 인권위가 이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혐오 표현을 한 사람은 애시당초 인권위원이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혐오 표현 금지 규정이라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인권위 안에서 이런 막말을 하고 있는 위원이 두 분이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금지 규정을 만들 수밖에 없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생각 어떠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저희들은 사실 품위유지의무라든지 이런 어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으로 대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또 정말 그런 나쁜 사례가 없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품위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처벌 규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 저희 방하고도 좀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고민정 위원** 뿐만 아니라 현재 후보추천위원회는 11명의 위원들 가운데 4명, 대통령 봇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 전원으로 확대할 것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고민정 위원**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모 절차가 없다 보니까 사회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된 이후에 나중에서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불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공모 절차에 들어가서 후보자가 응모하면 후보자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개해서 사회적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면 저랑 같이 법 개선에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말씀 춰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후보자 전부를 공개하지는 않고 그중에서 쇼트리스트(shortlist)라고 해서 몇 명으로 추려지면 그때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공개돼서 검증 대상이 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그 방안을 같이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언 위원** 인권위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장으로 지금까지 절제된 표현으로 의견을 주셨고요. 개인 의견과 기관의 의견을

분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권위원회법 13조제2항에 대해서인데요.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아까 소위원회의 의결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 주셨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저를 비롯한……

○**곽상언 위원** 개인 의견이시라고……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인권위원회 내의 몇몇 위원들은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기관 의견은 아닙니다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곽상언 위원** 그런데 그때 보게 되면 사건조사보고서와 다른 소위원회의 의결이 가능한 건가요, 원래? 혹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것……

○**곽상언 위원** 없었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례도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곽상언 위원** 또 하나, 인권위원회가 법률을 위반해서 의결한 사례가 혹시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드러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러난 것으로는 제가 아는 바 별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면 법률을 위반해서 만약에 소위원회든 전원회의든 의결하게 되면 그 의결은 효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효력이 그냥 단순히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시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곽상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소위원회 위원장이 법률 해석을 달리해서 의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곽상언 위원**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소위원회 위원장이 법률 해석의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이 규정을 보게 되면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밖에 나와 있지 않고 정족수 규정인데요. 이게 해석의 필요가 있는 규정입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사실 다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요. 몇 분께서 좀 전혀 각도가 다른 해석을 이번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곽상언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위원장께서 이렇게 위반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그 의결을 알았다면 즉시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그런데 그 심의 의결이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이후에 위원장이 개입할 방도가 마땅치 않고 그것은 아마 지금 생각해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곽상언 위원** 소위원회 위원장이 본인한테 없는 법률 해석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닌가

요? 직권남용 아닌가요? 과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그 직후에 사실 재고를 요청하면서 여러 가지, 다시 원점에서 논의할 방법이 없는지를 상의하고 싶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상언 위원** 제 질의사항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한 경우에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소위원장이 자신의 의사진행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닌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그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려면 결국 바로 그 사건에 관한 행정소송, 기타 이런 불복 방법에 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상언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률 위반 의심이 아주 강력하게 드는데 기관장으로서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실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곽상언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승찬입니다.

백재현 국회사무총장님께 좀 여쭙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에서 제정·개정한 법률에 대해서 행정입법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회사무총장 백재현**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들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것에 대해 국회법에 명시된 게 있지요? 잘 아시잖아요, 행안위도 있어 보셨고. 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에 있지요?

○**국회사무총장 백재현** 예.

○**부승찬 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쓰여 있네요, ‘행정입법 분석·평가 실시’라고 21페이지. 그렇지요? 20대 때는 4408, 21대 때는 6461 그리고 22대 때 37, 그렇게 보고를 하셨네요?

○**국회사무총장 백재현** 의견제시…… 그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드린 건이고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것은 한 200여 건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여기에 행안부 직제령도 들어가 있습니까?

○**국회사무총장 백재현** 예?

○**부승찬 위원** 행안부 직제령, 경찰국 신설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정부조직법을 보면 행안부장관의 관장 사무에 경찰이나

치안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법규정이. 그런데 행안부장관, 행안부에다가 경찰국을 신설했잖아요, 행안부 직제령을 통해서. 이게 법 위반 아니에요? 이런 경우 어떡합니까?

○**국회사무총장 백재현** 사무처가 법이 위반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부승찬 위원** 아니, 98조의2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의장에게 보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국회법에. 지금 시행령 쿠데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운영위 홈페이지에 가 봐도 행정입법 검토와 관련된 사항은 2003년 게 전부예요. 20년간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전문위원은 이걸 분석해서 보고하게끔, 상임위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접수·회답·의견제시 이렇게만 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회사무총장 백재현** 지금까지 국회의 활동을 정확히 아는, 사무처에 관한 것은 입법차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입법차장 권영진** 입법차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법제실에서 각 위원회 전문위원들한테 그런 많은 의견들을 분석해서 보냈는데 그리고 나면 결국에는 아까 의장께 보고하는 것도 그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사실은 법안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소홀히 된 게 있습니다. 소홀히 된 정도가 아니지요. 거의 못 했지요. 그래서 22대에는 각 위원회가 행정입법에 대해서 좀 더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또 대통령령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가지고 정부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승찬 위원** 지금 행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말살시키고 있어요. 검찰청법도 마찬가지고 행안부 직제령도 마찬가지예요. 법률 위반이에요. 이런 것들을 국회사무처에서 지적을 안 해 주면, 보고를 안 해 주면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입법차장 권영진** 예, 유념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위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님 다시 나와 주세요.

송두환 위원장님,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승진 문제에 있어서 4급 장애차별1과 과장님을 포함해서 총 다섯 명이 내부 승진심사를 마쳤는데 1년이 다 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임명 안 해 주고 있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화면을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실 방문기록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승진 요청을 위해서 대통령실에 올해 다섯 차례씩이나 직접 방문했고요 인권위와 대통령실이 주고 받은 승진 요청 수발신 문서도 지난주까지 총 다섯 번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가 대통령실에 수시로 전화를 해서 임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십시오.

지난 2월에 열린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원 위원이 뜬금없이 승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문제가 정상적인지 의심스럽다, 승진심사위원장이 왜 사무총장이냐, 사무총장은 승진심사 역량이 없다, 인사권이 남용되고 있다, 다른 부처는 이렇게 안 한다.

김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기관 인사규정 제가 찾아 왔습니다.

화면 또 보시겠습니다.

인사혁신처, 권익위,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부분 부처가 국가인권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승진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진행합니다.

황당한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황당하시지요?

김용원 위원님, 황당한 말 하신 거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전혀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용원 위원이 이 발언을 한 다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인권위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승진 문제에 대해서 수개월 동안 일언반구 없던 대통령실이 전화를 해서 김용원 위원님과 똑같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김용원 위원님, 지금 승진 문제로 혹시 대통령실과 따로 소통하고 계신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전혀 없습니다.

○**서미화 위원** 확실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습니다.

○**서미화 위원**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가뜩이나 인사 정체로 차기 위원장 체계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일언반구 안 하던 대통령실이 갑자기 전화까지 해서, 그것도 김용원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바로 얼마 안 돼서 대통령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일 김용원 위원이 대통령실과 인사 개입까지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명백한 인권위 농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금시초문입니다.

○**서미화 위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김용원 위원님, 위원장 도전하실 거냐고 물으실 때 대답을 안 하시던데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인사 문제에 관해서 제가 고민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미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까, 인사가? 대통령…… 그 위원장이?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만일에 저를 위원장감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저의 의견을

아마도 물어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서미화 위원 그래요?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서미화 위원 그러면 제가 과거 위원님하고 같이 함께 인권위원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동했던 동료로서 한마디 충언드릴게요.

만약에 도전해서 여기 국회 오셔서 청문회에서 국민 앞에서 웃음거리 되시고 안 되실 것 같으니까 도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충언드립니다. 그리고 인권위원도 사퇴하시기를 충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청문회에서 어떤 사항,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저의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묻지 않았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고민정 위원 지금 말 안 끝났지 않습니까, 질문자가! 질문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니,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다 들리는데 지금.....

○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 김용원 위원님, 잠깐 저쪽으로 가시지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밥 드셨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신장식 위원 식사도 하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신장식 위원 아까 인권위원장 도전에 관해서 이충상, 김용원 두 분이 이야기는 나눴는데 상의하시는 않았다 그려서 가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야기는 나눴는데 상의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밥은 먹었는데 식사는 안 하셨다, 뭐 이런 뜻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셨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상의를 안 하신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장식 위원 인권위원장 도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인권위원장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기보다는.....

○신장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인권위원장 도전에 대해서

두 분이 이야기 나눴다고 얘기하셨어요, 오전에. 그런데 상의는 안 하셨다고 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인권위원장의 임기 만료와 후임 인권위원장의 임명 절차나……

○**신장식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두 분이 인권위원장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의하셨나 그랬더니 이야기는 나눴는데 상의하지 않으셨다면서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제가 아까 인권위원장 도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신장식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 들렸다면……

○**신장식 위원** 잠시만요.

송두환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PPT 좀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인권위 부서별 장기사건 처리 현황 보시면요 장애차별조사1과만 전년 대비 장기사건 처리가 작년 40건에서 올해 73건으로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로 보이는 테요.

위원장님, 왜 다른 위원회와 달리 장애사건 장기사건 처리가 이렇게 적체되고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사실 어떤 사건이 여러 건이 병합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만 실은 저도 이런 숫자를 보면서 장애차별조사1과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과 혹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인사혁신처 모집공고를 통해서 임용후보자 채용 절차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간 대통령이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이 수치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과 임명을 이유 없이 대통령이 지체하거나 이충상, 김용원—반인권 독직 인권위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게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트리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정하고 벌이는 일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 보는데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인권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항상 생각은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신장식 위원** 그 가능성 중의 하나일 수 있나요, 대통령께서 인권위원회를 망가트리려고 하는 가능성?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는 그 범위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장식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김용원 위원에게 물은 게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장이 할 말이 아니라고……

○**신장식 위원** 저 답변 중지시켜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위원님!

○**신장식 위원**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위원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태도 취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위원장 박찬대**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김용원 위원님, 저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좀 간명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위원장에 도전하실 겁니까? ‘예, 아니요’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권위원장에 도전하실 겁니까? ‘예, 아니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인권위원회장을……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 인권위원장으로 지명하시면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지명을 하신다면, 뭐 이렇게 부질없는 가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정을 하고 답변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윤건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 위원은 인권위원장 되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그것을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인권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만일에 제가……

○**윤건영 위원**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제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윤건영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 아니라고요!

많은 위원들의 생각은 인권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새겼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김 위원님께서 국방부장관에게 먼저 전화통화를 요청했고 8월 14일 오후에 전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 위원께서 먼저 전화 연결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맞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오전에도 지적했지만 전화 연결 자체가 부적절하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매우 적절한 연결이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김 위원한테 질의한 게 아니라고요!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통상 인권위원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해당 내용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무부처 장관에게 전화해서 친절하게 알려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저는 그런 사례를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윤건영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혀 통상적이지도 않고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즉 김 위원께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을 벌인 거예요. 국방부장관한테 ‘내가 설명해 줄게. 통화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장은 국방부장관이 응하지 않고 있다가 8월 14일 날 군인권센터에서 제소를 하니까 국방부장관이 허겁지겁 김 위원에게 전화를 연결한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죄송하지만 주말이 겹쳐 있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제가 질의 안 했습니다, 김 위원!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주말이 겹쳐 있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김 위원, 제가 질의 안 했다고요. 이러다가 퇴장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퇴장하고 중인으로 다시 출석하시겠어요, 김용원 위원?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시간을 멈춰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건영 위원 시간을……

○위원장 박찬대 1분으로 다시 멈춰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김용원 위원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정말 부적절하게 처신하고 계시는데 국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위원장이 조용조용 얘기하면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런데 왜 자꾸 답변할 타임이 아닌데 말씀을 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자기 질의시간을 아껴 가면서 국민 앞에서 질의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딱딱 자르고 평하면 되겠습니까? 자꾸 이런 태도 취하시면 퇴장을 명하고 중인으로 정식으로 의결해 가지고 다시 부르겠습니다. 유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윤건영 위원님 발언 끝나고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권위원이 박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의 장본인인

국방부장관에게 전화해서 인권위의 입장을, 취지를 설명한다? 말도 안 되는 언어로 단입니다. 고양이 한테 생선을 갖다 바치는 거지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건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김 위원이 인권위 입장 발표 이후에 백팔십도 입장이 바뀌어요. 그 과정에서 외부적 요인이 있다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시 한번 김 위원께 묻겠습니다.

박 대령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 또는 여권 관계자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전혀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면 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과 대단히 가깝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만난 적이 있거나 만나서 박 대령 수사 외압 관련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전혀 없습니다. 만난 것은 권익위원장 취임 직후에……

○**윤건영 위원** 여보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만나서 식사를 한 일은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여기 마음대로 하시는 데 아니에요.

○**신장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추미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또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김용원 인권위원의 발언의 태도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도뿐만 아니라 발언의 표현도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신장식 위원님이 인권위원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끼어들어서 ‘막말입니다’라고 했는지 ‘망발입니다’라고 했는지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6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많은 증인과 또 임석한 기관들에 질문도 촉구해 보고 답변도 들었지만 이 같은 일은 지금 처음 겪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회의를 중단하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장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 같은 취지인데요. 송두환 인권위원장님께 질의하는 동안 아까 김용원 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말이라고 한 건지 망발이라고 한 건지 뭐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한 건지 좀 불분명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부터 좀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 본인이 쓴 편지도 기억하지 못하시면서 무슨 그런 기억이 정확하시겠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방금 한 말은……

○위원장 박찬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고민정 위원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조금 전에 봐서요 도저히 국회를,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질의응답 받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늘 국회 의석을 정돈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국회라는 공간은 물론 때로는 질의하면서 설전이 오가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또 국민이 다 보고 있다는 전제하에 무언가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정회 시간에 김용원 위원께서 인권위원회에게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여기가 무슨 싸움판입니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인권위에 가서 하시든 밖에서 하시든 최소한 이 국회라는 공간은 벗어나셔서, 무엇을 하든 거기까지는 저희가 터치할 수 없지만 국회라는 이 신성한 공간에서 김용원 위원이 인권위원회장을 향해서 했던 그 발언과 태도들은 저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질의응답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용원 위원의 퇴장을 요구하고 또 다음번 상임위에서는 중인으로 출석시켜 줄 것을 위원장께 요청드립니다.

○정진욱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예.

○정진욱 위원 김용원 위원님, 인권위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마지막 인권의 전선을 지키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권 감수성 그리고 인권의식으로 무장한 인권의 전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의 출발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용원 위원님이 보여 주신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경악스럽습니다. 인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인권과 인권위를 파괴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까 녹취록에서 나온 상임위원의 목소리 중에 ‘사무처 따위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김용원 위원님의 목소리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도중에 끼어들어서 ‘막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송두환 위원장님 뒤에서 위협적으로 항의하는 그런 태도 국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김용원 위원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오늘 보여 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제가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박찬대 예.

○박성준 위원 늦게나마 김용원 위원님이 사과를 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저희가 정회한 이유 중의 하나가 중간에 신장식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질의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김용원 위원이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확한 말은 ‘막말’이 아니라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점 확인시켜 드리고요.

김용원 위원님께서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로서 운영위에 출석하셔서 답변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인권위원들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존경받고 훌륭한 인물들이 인권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고개 숙여서 그 인권위원에게 경의를 표했던 모습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과 오늘 김용원 위원의 모습은 너무 달랐다, 그 점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 공직자로서 대하는 태도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하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위원들이 김용원 위원을 질타하는 겁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회의를 계속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추미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저도 막말 또는 망발이 잘 구분이 안 됐는데 속기록상 망발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본인의 사과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망발이라고 했겠어? 막말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조금 그 발언의 수위를 저 나름으로는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어느 경우든 본인의 사과 여부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또 더군다나 아까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 말씀처럼 정회라는 것도 이후 회의가 속개되는 것을 예정하고 회의 절차상 잠시 정회하는 국회 공간인데, 회의라는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도 다 임석해 계신 가운데 정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식으로 위원장을 향해서 있을 수 없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인권위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런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용원 위원이, 아까 제가 녹음을 틀어서 들려 드리면서 목소리 특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면서 양심에 좀 찔리겠지라고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다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말씀일 때인가요, 그런 말을 했느냐 확인을 했더니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김용원 위원의 목소리, 육성 목소리를 확인시켜 드렸지만 이것은 간사 위원님 말씀처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수시로 거짓 위증을하거나 부정을하거나 또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적극적으로 왜곡을하거나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전혀 반성치 않는 이 태도를 본다면 인권을 다루는 인권위원으로서 인권 감수성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대하기를 아주 우습게 대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발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도 그냥 발언을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이후 반드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으로서 청취해야지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

하고요. 이후 증인으로 이 자리에 다시 불러 세우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박찬대 의사진행발언 노중면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노중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면 위원 지금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상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국회의 권위 문제도 있고, 상임위 현장에서 나온 발언 그리고 또 정회 시간에 나온 상황은 물론 그나마 사과를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사실은 사과를 안 하셨으면 저는 고발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사과를 해 주셨으니까 잠깐 냉각기라고 할까요 좀 시간을 갖고, 다만 증인으로 채택해서 위증을 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인권위 때문에 국회사무처 분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고요.

지금 회의록을 보았는데요 김용원 상임위원이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의사록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정회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들어 보았을 때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발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용원 위원께서 위원들이 발언할 때마다 바로바로 답변하고자 하는 의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까지 참석하지 못했던 이충상 상임위원과 김용원 상임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다시 충분히 이야기를 들을 시간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용원 상임위원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퇴장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퇴장해 주십시오.

계속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이 많이 지연됐었는데요, 아까 윤건영 위원님까지 질의하셨나요?

윤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종근 위원 아까 김용원 위원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던 건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다음으로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혹시 다음 보충질의를 계속하실 분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저는 국회예산정책처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 없이 조세 없다, 조세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 없이 부과될 수 없다는 세계사적인 원칙인데 들어 보셨지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예.

○ **임광현 위원** 세금 부과의 근거를 국민의 대표들이 국회에 모여서 법으로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처장님께서는 지난 2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예산안과 부수법안인 세법의 자동부의 제 개선 필요성을 밝히셨는데 저도 매우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자 했던 것인지 세법 심사 과정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원래 자동부의제도라는 것은 예산심사 기한에 못 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12월 1일이 되면 예산안과 그 예산부수법안을 함께 본회의로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만든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제도적 개선 방안은 나타나지 않고 심사 기한은 마냥 자연이 되면서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더 논의가 자연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렇습니다. 국회가 민의를 충실히 반영해서 세법을 면밀히 심사해야 함에도 국회법상에 큰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회에 심사가 집중되는 것을 고려하면 세법 심사일은 연간 20일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예산부수법률안의 자동부의제도로 인해서 매년 11월 30일만 넘기면 세법 심사가 정부 뜻대로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지요. 12월이 되면 세법 심사 당사자인 국회의원조차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세평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회는 국회 고유의 세법 심사를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아니면……

보충질의? 정을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 **정을호 위원**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존경하는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을호 위원** 국회사무처에 요청하려고 준비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입법에 의한 정부의 자의적 행정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 98조의2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사무처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에 의한 행정부 견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국회사무총장 백재현** 예, 부분……

○ **정을호 위원** 특히 윤석열 정권 이후 시행령 통치를 일삼으며 사회적 갈등과 찬반에 이견이 많았던 행정입법, 예를 들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및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전혀 검토하지도 않으셨고요 불법적 행정입법에 면죄부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사무처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제도 개선과 대책 그리고 이런 행정입법 검토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행정입법이 제대로 검토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국회사무총장 백재현** 정을호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입법은 앞으로 계속 추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제와

관련돼서 고치는 것이 상당히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많이 이행되고 있어서 아마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문제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정을호 위원님 말씀에 죄선을 다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오늘 국가인권위 질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국가기관이 인권위처럼 이렇게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자기 기능을 잃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볼 때마다 연산군 정권이 아마 저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오늘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마 단군 아래 이런 정권은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국가기관 속으로 밀어 넣는, 어떻게 보면 자폭테러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국가기관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위는 세 분의 상임위원이 있으신데요. 우리 남규선 상임위원님께—자리에서 말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권위에 오셨을 때가 21년 8월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남규선** 예.

○**정진욱 위원** 그 이후에 이충상, 김용원 두 분이 1년 그리고 한 1년 반 이렇게 뒤에 오셨는데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이 두 정부가 달라지면서 저는 인권위의 분위기나 역할이나 기능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규선 위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김용원 위원님이 본인이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송두환 위원장님 뒤를 이어서 인권위원회장을 맡고 싶다는 의사를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표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알 수 있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무너진 인권위의 기능에 김용원 위원장님 같은 분 또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위원장을 맡겼을 때 국가인권위의 기능이 정말 완전히 마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보내는 독립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들의 구성에 있어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를 우려하고 그것에 동의하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넣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몇 달 전에는 보고서에 넣을 수가 있었는데 한 서너 달 후에는 넣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거의 같은 유엔에 보내는 보고서에도.

그런 점에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강화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 13조 정족수는 인권위원회법을 처음 만들던 당시에,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전원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전원위원회에 자동으로 가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려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운영규칙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통과되는 2001년 4월에.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법에 있지 않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법 개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국회도서관장님, 아까 전자정보도 많이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 지수를 어떻게 평가한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서관장님께 질문했습니다.

○국회도서관장 이명우 저한테요? 죄송합니다.

○추미애 위원 예.

(웃음소리)

○국회도서관장 이명우 죄송합니다.

○추미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부 들어서서 15단계가 추락해서 현재 62위입니다. 국내 언론은 ‘입틀막’ 당하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입꾹닫’을 하는 것인지 국민이 알아야 될 것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가운데 거꾸로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에서도 외신 정보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의 신문이나 또는 잡지 같은 것들을 전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간행물식으로 오는 것만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국회도서관장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전자서비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회도서관장 이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로는 김용원 또는 이충상 상임위원이 일을 잘해서 언론 보도가 난 것이 아니고요 인권위원회 않은 인권위원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만큼 됩니다, 제가 찾은 것만. 김용원 관련해서는 62건, 이충상 위원 관련해서는 무려 34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중인으로 두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질문드리기로 하고 위원장님 또는 우리 남규선 인권위원님께 이렇게 좀 묻겠습니다.

외교는 주권의 표현이거든요. 주권자는 국민이지요? 그러면 국민을 대신해서 법의과 권익을 지켜 내기 위해서 외교를 하는 것인데, 외교가 필요한데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외교적 조치를 하지 않고 국민의 인권침해 과거사를 팽개치고 오히려 우리의 대법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 배상권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마저도 국가가 느닷없이 외교적 필요가 있다, 관계를 개선시킨다라는 이유로 국민 피해를 강요할 때는 인권위가 나서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추미애 위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오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교는 그 주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김용원 위원이 스스로 직권조사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직권조사 당해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 권한 남용에 대해서, 인권위원으로서 아까 그런 소위를 마치 깡패처럼 함부로 기각해 버리거나 각하해 버리고 권한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하는 사태에 대해서 퇴임하시기 전에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 명령을 해 두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필요하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입니다.

소위원회 여섯 곳에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안건은 전원위원회에 상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요,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노종면 위원** 그런데 총 95건이 만장일치가 안 됐는데 그 가운데 44건이, 최근 5년 사이에 44건이 전원회의로 못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44건 모두 2023년부터 이 직을 수행하고 계신 김용원 위원이 소위원회를 맡고 있는 곳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44건이라는 숫자는 그렇고요. 근래 한 몇 개월 동안에 여러 건을 그렇게 처리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95건 가운데 44건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고 이 건수 모두 김용원 위원이 소위원회으로 있는 두 곳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군인권보호위원회, 김용원 위원이 위원장 맡고 있는 2개 소위 중에 하나이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노종면 위원**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채 상병 직속 상관이었던 제7포대장 이 모 중령의 진정이 배당돼 있는 게 사실입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박정훈 대령 관련된 진정과 긴급구제신청이 다 기각된 소위원회에 같은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로 보이는 채 상병의 직속 상관 이 모 중령 이분의 사안은, 진정 건은 전원회의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것도 소위원회에다 두실 겁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이런 사건이 성격상 어느 소위원회로 배당이 되면 그냥 전원 위원회로 보낼 수는 없고요. 그 해당 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로 회부하는 결정을 해야 그리 보낼 수 있게…… 그렇기는 합니다.

○**노종면 위원** 그건 기본 절차가 그렇고요. 인권위 운영규칙 제17조 2항에 보면 인권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원위 임시 회의를 열어서 사안을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전원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하면 그렇게 또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위원장께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자, 채 상병의 직속 상관 이 모 중령. 그렇게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김용원 위원이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박정훈 대령 진정 건 기각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수사 의뢰가 돼서 공수처가 배당까지 했어요, 이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사람한테 맡겨도 돼요?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위원님 말씀 듣고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고심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제기된 해병대 7포병대대 전 대대장이 제기한 사건은 사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그 자체는 아니고요 그 사망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대대장이 말하자면 상사, 기타 주변으로부터 좀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라서 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검토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요는 이게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건데 박정훈 대령이나 이모 중령이나 수사 외압, 정권 차원의 수사 외압 피해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노종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송두환 위원장님, 제가 김용원 위원에게 질의할 때 치세냐 난세냐 했더니 난세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예.

○**박성준 위원** 그리고 제가 죽 살펴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그 회의를 보니까 ‘난장판’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아니, 오늘 보니까 축소판이 그대로 드러났단 말이지요. 정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신장식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국가인권위원회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송두환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생각해 보는 중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와중에 김용원 위원이 말을 끼어 들어서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시간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위원장님께.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민낯이라고 할까요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

하고,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는지 그런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제가 사실 우선 평소 소회는 정말 넓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고요. 마침 기회를 주셨으니까…… 좀 전에 신장식 위원님께서 대통령실에서 위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생각이 혹시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셔서 제가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가능성을 생각하는 어쨌든 그 범위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망발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논의, 망발이라는 표현이 왜 나온 거냐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결국은 그것이 한 번쯤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아까 ‘그럴 가능성이 우리가 생각해 보는 범위 안에는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구체적으로 뭐냐를 여기서 말씀드려 놓는 게 추후 논의하시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당시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신 위원님께서 대통령실이 혹시 망가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취지에 제가 동의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가능성까지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생각을 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거기에, 바로 그 내용 자체는 아닙니다만 대통령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인사가, 3급 4급 5급 여러 급에 걸쳐서 여러 명입니다만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지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통령께서 이 현황을 직접 정말로 잘 아신다면 이대로 방치하지는 않으실 텐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대통령실에 저희들 의견, 이런 불편을 호소하고 그러면 듣고 즉각 반응을 해 주고 이런 어떤 어떤 체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망발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적절하냐 안 하냐, 언젠가 그 얘기가 될 때는 위원장이 그렇게 답변한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이었느냐가 반드시 문제될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2년 내에 대한민국의 인권이 어느 정도까지 후퇴되고 있는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권익위원회, 청렴해야 되고 부패를 막아야 될 위원회가 엉뚱한 판단으로 사람들 혀웃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까지 혼들리고 떨어질 걸 목도하는 것이 사실 실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국가인권위원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더 노력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 추가질의, 보충질의 더 하고 싶으실 텐데요 오늘 이 정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안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국회사무총장님, 이명우 국회도서관장님,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님,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님,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많은 후퇴와 좌절이 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행정부를 적절하게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야 될 텐데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국민들은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개혁국회 또 일하는 국회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아 보고 또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대표 기관인 헌법기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장들께서는 모두 최선을 다해서 국회의 입법권과 국회의 권위가 더 이상 추락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내 정돈 및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여러분, 10분 뒤에 뵈면 될까요?

그러면 지금이 16시 조금 안 됐는데요. 16시 10분에 속개해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인 채택과 관련된 의결이 있으니 의사정족수 잘 지킬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해당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 아닙니까?

잠시 기다리는 동안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들 발언……

○박성준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요 대통령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대통령 영부인의 명품백 뇌물수수 사건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동해 앞바다에서 수백만 배럴의 유전이 발견됐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유전과 관련된 의혹도 더욱더 날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고는 날로 심각해지고 경제는 위기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질문을 거부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업무보고와 현안에 대한 질문이 시급한데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경호처장과 수석비서관 그리고 비서관들을 중인으로 채택하고 오늘 출석하지 않았던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위원 또 김용원 위원도 중인으로 채택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서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7월 1일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중인 출석 요구를 안건으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대 다음 추가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강유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유정 위원 방금 박성준 간사님의 의견에 보태서, 그게 끝이 아닌데요. 최소한의 자료 제출조차 지금 거부 중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세계와의 대화’라는 책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언론 인터뷰 모음집입니다. 그런데 유독 23년 4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만 빠져 있는데요, 그것만. ‘100년 전의 일로 일본에게 무릎을 끓으라고 할 수 없다’라는 친일 망언으로 우리 국민 얼굴에 먹칠을 했던 바로 그 인터뷰만 빠져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 것만 빠졌는지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지만 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건의 자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전부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양심도 없구나 싶은데요.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이들의 국회 출석과 함께 자료 제출도 촉구합니다.

동행명령, 고발조치 등 우리가 법에 명시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받아야 될 것은 받고 물어야 될 것은 물어야 될 게 아닌가, 그게 저희 책임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 위원장님, 지난 회의 때 대통령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현장 방문조사 가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살펴보니까 2019년 6월부터 2023년 8월 달까지 일곱 차례 정도 현장 방문조사 사례가 있었고요. 특히 2019년 6월 17일 날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단독으로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에 가서 현장 방문조사하고 현안보고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는다면 가서 현장 방문조사 진지하게 저희들이 고민해 볼 수 있고 추진할 만한 충분한 사례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국힘 의원들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고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는데 양쪽 다 국민을 거부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계속 국회 거부하다가 반드시 등원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 표결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그때는 전원 108명이 다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면 재의결 방탄정당, 용산 방탄정당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이상한 선택 하지 않게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등원을 국민의힘에도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예.

박성준 간사님, 강유정 위원님, 신장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같이 지금 현재 민생이 어렵고 국정 현안도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고위공무원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에 불출석하고 자료를 내지 않는 등 국회 소관 상임위 업무에 정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참으로 개탄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등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을 만큼 나라의 상황이 한가롭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손을 놓지 않고 7월 1일 10시에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안질의에 필요한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6시20분)

○위원장 박찬대 이에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라 간사와 협의해서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상 18명을 7월 1일 10시에 우리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 요구 문건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직원, 경위 및 속기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증인 명단

증인(18인)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출석요구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문요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영부인 뇌물 수수, 동해 유전 발표, 민생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신청이유) 관련 현안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로서 출석이 필요	
성태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문요지) 동해 유전 발표, 민생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신청이유) 관련 현안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로서 출석이 필요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신문요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영부인 뇌물 수수, 동해 유전 발표, 민생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신청이유) 관련 현안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로서 출석이 필요	2024. 7. 1.(월)
이도운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신문요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영부인 뇌물 수수, 동해 유전 발표, 민생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신청이유) 관련 현안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로서 출석이 필요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신문요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영부인 뇌물 수수, 동해 유전 발표, 민생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출석요구일
		(신청이유) 관련 현안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로서 출석이 필요	
전광삼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신문요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영부인 뇌물 수수, 동해 유전 발표, 민생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신청이유) 관련 현안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로서 출석이 필요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신문요지) 동해 유전 발표, 민생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신청이유) 관련 현안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로서 출석이 필요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신문요지) 동해 유전 발표, 민생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신청이유) 관련 현안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로서 출석이 필요	
박상욱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신문요지) 동해 유전 발표, 민생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신청이유) 관련 현안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로서 출석이 필요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신문요지) 대통령비서실 등 특수활동비, 대통령비서실 등 물품관리 실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문제, 민생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신청이유) 관련 현안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로서 출석이 필요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신문요지) 공공기관 인사문제, 민생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신청이유) 관련 현안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로서 출석이 필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신문요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출석요구일
		안보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신청이유) 관련 현안 심의를 위하여 국가안보실 공직자로서 출석이 필요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	(신문요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안보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신청이유) 관련 현안 심의를 위하여 국가안보실 공직자로서 출석이 필요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신문요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안보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신청이유) 관련 현안 심의를 위하여 국가안보실 공직자로서 출석이 필요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신문요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안보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신청이유) 관련 현안 심의를 위하여 국가안보실 공직자로서 출석이 필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신문요지) 영부인 뇌물 수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문제, 경호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신청이유) 관련 현안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경호처 공직자로서 출석이 필요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신문요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직무 수행 등 관련 현안 (신청이유) 관련 현안 심의를 위하여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출석이 필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신문요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직무 수행 등 관련 현안 (신청이유) 관련 현안 심의를 위하여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출석이 필요	

○출석 위원(18인)

강유정 고민정 곽상언 노종면 박성준 박수현 박찬대 부승찬 서미화 신장식
윤건영 윤종군 이소영 임광현 정을호 정진욱 천하람 추미애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태형
입법심의관 주성훈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백재현
입법차장 권영진
사무차장 박장호
기획조정실장 김상수
법제실장 박희석
의사국장 정명호
국제국장 황승기
관리국장 임종수
방송국장 김명진
의정연수원장 이현정
문화소통기획관 정지은
공보기획관 성소미
감사관 손을춘
경호기획관 황충연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김광선
인사과장 남궁인철
운영지원과장 이홍석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 송수환
국회도서관
관장 이명우
의회정보실장 현은희
법률정보실장 최용훈
기획관리관 이진경
정보관리국장 유미숙
정보봉사국장 조영란
국회기록보존소장 신경숙
국회부산도서관장 조정권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조의섭
예산분석실장 김경호
추계세제분석실장 신향진
기획관리관 이양성
경제분석국장 진익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박상철
정치행정조사실장 이복우
경제산업조사실장 강종석
사회문화조사실장 강대훈
기획관리관 심정희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김현곤

연구지원실장 유희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상임위원 남규선

상임위원 김용원

사무총장 박진

기획조정관 조영호

정책교육국장 이석준

침해조사국장 서수정

차별시정국장 염형국

군인권보호국장 박홍근

교육협력심의관 안성율

【보고사항】

○의안 회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8)

이상 5건 6월 19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9.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1)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4. 6. 19. 이소영 의원 등 21인 발의)(의안번호 2200667)

이상 3건 6월 20일 회부됨